



원대연기자 yeon@donga.com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정희경 전의원 등 여성계인사 400여명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을 열고 장상 국무총리서리에 대해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계 “張서리 비판적 지지”

400명 편견없는 청문회 요구

장남국적등은 냉정히 평가

국내 여성계 인사 400여명은 최근 아들 국적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장상(張裳) 총리서리 문제와 관련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모임을 갖고 장 총리서리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으로 명명된 이날 모임에는 박영숙(朴英淑) 전 의원을 비롯해 신낙균(申樂均) 새정치여성연대 대표, 정광모(鄭光謨) 소비자연맹 회장, 정현백(鄭鉉栢) 여성연합 대표, 황산성(黃山城) 변호사, 은방희(殷芳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63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범여성계 지도자들이 망라

됐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장 총리서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여성계의 기대가 각별한 만큼 여성총리에 대한 평가가 '성(性)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이뤄져 사회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29, 30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 주문했다.

이들은 또 장 총리서리에 대해서는 “장남의 국적 문제 등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답변을 통해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 총리로서의 국가관과 역사관, 도덕성을 냉정하게 평가받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